

COSMETIC REPORT

발행처 (사)대한화장품협회
발행월 2026년 4월 넷째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문 의 Tel : 02-785-7985
Fax : 02-782-6659
E-mail : jacklbs@kcia.or.kr

CONTENTS

화장품 정보 03

'AI 의사 추천' 금지된다...약·식품 광고 규제 강화[연합뉴스] -----04

식약처, 국산 화장품 수출지원 위해 정확성·편의성·접근성 강화[장업신문] -----04

화장품 산업 전주기 포괄지원법 제정[주간코스메틱] -----05

<국내외정보>TBT WTO 통보문 전파 및 의견 수렴 (화장품 관련 간접 영향 가능 규정 안내) -----06

<해외화장품 시장동향>캐나다 K-뷰티 성장 가속화, '틈새시장'을 잡아라[코트라 해외시장뉴스] -----07

협회 업무추진현황 18

「일본 약용 화장품 왜 지금인가? 한국 화장품의 현지화 고도화 전략 웨비나(유료)」개최 안내(5.19) -----19

대한화장품협회 회원사 대상「화장품 글로벌 규제 뉴스레터」구독자 모집 안내 -----21

행사 소식 28

[관계부처 합동]「포장재 분야 글로벌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EU PPWR)」 -----2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분야 정상 개선 아이디어 공모 안내 -----30

[KOTRA] 중동 전쟁 피해기업 지원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31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6 K- 년도 뷰티 해외 팝업스토어 및 판매장 운영 지원사업 추가 공고 안내 -----32

회원사 뉴스 33

화장품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화장품 산업계 동향

'AI 의사 추천' 금지된다...약·식품 광고 규제 강화('26.4.24)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음
- 우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됐음. 이에 따라 AI 기술 발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424043000017?input=1195m>

[1]K-기초화장품, 1분기 수출 13억 달러...무역흑자 12억 달러('26.4.20)

- 관세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6년 1분기 기초화장용 제품(HS 3304991000)의 총 수출액은 13억 1,622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11억 471만 달러) 대비 약 19.1% 급증한 수치임
- 국가별로 보면, 최대 수출국인 미국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미국 수출액은 2억 4,299만 달러로 전년(1억 8,246만 달러) 대비 33.2% 증가했음. 무역수지 역시 2억 2,110만 달러로, 전년(1억 6,143만 달러)보다 크게 개선되며 K-뷰티 기초화장품의 미국 내 입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관련링크:

<https://www.thebk.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032&page=5&total=75470>

인도 화장품시장 '지금' 진출해야... 기초화장품·선크림 유망, 한국식 스킨케어 인기 ('26.4.21)

- “인도는 ‘시도해 볼만한 시장’이 아니라 ‘지금 진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어려워지는 시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EU-인도 FTA 발효('27년 예상)와 인도 자국 브랜드의 급성장을 고려하면, 현재의 관망은 곧 진입비용 상승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임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인도 화장품 시장은 2022~2024년 동안 연평균 4.7% 성장했다. 메이크업 시장이 6.2%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립과 페이스 케어 제품이 각각 7.5% 증가해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스킨케어 시장은 4.8%, 자외선 차단제품은 12%의 높은 성장세를 달성했음

- 관련링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10885>

식약처, 국산 화장품 수출지원 위해 정확성·편의성·접근성 강화('26.4.20)

- 식약처는 기업이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도입, 모바일 웹 구축, 주요 정보 업데이트 시 맞춤형 알림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중심 디지털 기반 규제정보 플랫폼으로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개편할 예정임
- 또한 웹사이트 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화장품 규제상담 서비스 ‘AI 코스봇’의 경우 기존에는 질의에 대해 단순 서술형 답변을 제공하였으나, 앞으로는 ▲핵심 요약 → ▲관련 규제 절차 → ▲법적 근거 → ▲추가 안내순으로 구조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해도를 높일 예정임

- 관련링크:

<https://www.jangup.com/news/articleView.html?idxno=98517>

식약처, 베트남과 식의약 규제 협력 강화('26.4.23)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가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또 램(To Lam)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신호탄으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베트남 보건부와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음
- 오유경 식약처장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다오 홍 란(Dao Hong Lan) 베트남 보건부 장관을 만나 화장품·식품·의약품 등 안전성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음

- 관련링크: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2645>

화장품 산업 전주기 포괄지원법 제정('26.4.20)

- K-뷰티가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속 작동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 화장품 업계,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종합 화장품 지원 체계가 구축되고 화장품 산업진흥·기술개발·수출확대·ESG 경영 등 산업 전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지원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 송재봉 의원이 4월 16일 대표발의한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 이 법은 화장품산업의 기반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링크:

<https://www.geniepark.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755>

떠오르는 K뷰티 유통채널 '약국'('26.4.22)

- 최근 K뷰티 유통 지형에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올리브영을 중심으로 한 H&B 스토어, 쿠팡네이버 등 이커머스 채널이 시장을 주도해 온 가운데 '약국'이 새로운 뷰티 유통 채널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임
- 단순한 보조 판매 채널에 머물렀던 과거와 달리, 이제 약국은 기능성화장품과 더마코스메틱 중심의 핵심 접점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음

- 관련링크:

https://www.cmn.co.kr/sub/news/news_view.asp?news_idx=49735

'검색' 사라진 쇼핑... "AI 에이전트 잡아라"('26.4.24)

- 최근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검색의 실종'임. 소비자가 문제를 인지하고 검색이라는 액션을 취하기 전에, AI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요를 미리 예측해 정답을 제시하기 때문임. 게다가 소비자들 정보가 얻는 통로 자체가 '검색창'에서 '대화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
- AI 쇼핑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신뢰'라는 인프라다. AI 에이전트는 정보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재구성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과 거래의 진정성은 점점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 관련링크:

<https://www.beautynury.com/news/view/111169/cat/10>

○ 국내외 정보

TBT WTO 통보문 전파 및 의견 수렴 (화장품 관련 간접 영향 가능 규정 안내)

TBT 통보문/미통보문 전파 및 의견 수렴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장품 관련 간접 영향 가능 통보문 목록

- VNM373A1_ [전제품] 베트남_대외무역관리법 이행 조직 및 지도를 위한 일부 조항과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는 시행령 초안
- CHE301 [스위스] 화학일반_화학제품 위험 저감에 관한 명령(ORRChem) 개정안
- SAU1283A1 [사우디아라비아] 전 제품_제품 적합성 모델 가이드 초안
- 2026-1196 [우즈베키스탄] 전 제품_적합성 평가 및 국가 적합성 마크 부착 절차 (초안, 2026.02)
- 2026-1204 [우즈베키스탄] 전 제품_국제 모범 사례에 기반한 기술 규정 분야 개혁 가속화 조치, 법령 제 UP-25호, 2026년
- 2026-1208 [베트남] 전 제품_전자상거래법 시행령, 2026년 2월 초안

2. 회신처: tulip97@kcia.or.kr/070-8709-8613

- 관련링크: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7537&ss=page%3D2%26skind%3D%26sword%3D%26ob%3D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화장품 시장 동향

캐나다 K-뷰티 성장 가속화, '틈새시장'을 잡아라

2026-03-19 토론토무역관 주형태

- 한국, 압도적 성장률로 수입국 3위 등극... 캐나다 뷰티 시장의 'K-임팩트' -
- 캐나다 뷰티시장 구조 변화 속 다문화 기반 니치 공략이 K-뷰티 확산 견인 -

2026년 현재 K-뷰티는 일시적 유행을 넘어 캐나다 뷰티 시장의 구조적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카테고리로 진화했다. 한국 화장품 산업 특유의 빠른 상품 개발 및 제품 출시 역량과 더불어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을 기반으로 한 브랜딩은 현지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구매 동기를 제공하며 인지도와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는 중이다. 캐나다 시장은 보수적인 유통 구조를 지녔으나, 다문화 기반의 거대한 니치 시장이 존재한다. 이 틈새 진입에 성공할 경우 높은 재구매율과 충성도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브랜드 '락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장동향 및 한국산 제품 수입현황

캐나다 정부 무역 통계(Trade Data Online) 분석 결과, 2024년 캐나다의 화장품(HS 3304) 총 수입액은 약 28억 캐나다 달러를 기록하며 2020년 대비 약 46.5% 성장했다. 이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한국산 화장품의 위상 강화이다. 한국은 지난 5년간 (2020년~2024년) 연평균 성장률 30.1%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이탈리아를 제치고 프랑스에 이어 수입국 3위에 등극했다. 특히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여 K-뷰티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아모레퍼시픽 캐나다 등 주요 진출 기업들의 활약으로 한국 제품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메인스트림의 핵심 카테고리로 진화했다.

〈HS 3304 캐나다 수입액 상위 10개국 시계열 추이 및 성장률 (2020-2024)〉
(단위: 천 캐나다달러, %)

순위 (24년 기준)	수입국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CAGR (20-24)
1	미국	1,094,602	1,125,954	1,315,197	1,449,024	1,484,451	7.9%
2	프랑스	209,208	235,438	280,684	318,865	307,586	10.1%
3	한국	82,739	92,434	120,326	176,648	236,774	30.1%
4	이탈리아	117,939	122,095	159,537	176,367	192,071	13.0%
5	중국	85,132	78,311	100,389	140,338	153,679	15.9%

6	독일	44,859	44,135	50,790	55,026	51,283	3.4%
7	일본	56,170	52,303	65,252	54,486	47,631	-4.0%
8	가공 후 캐나다 재수입	25,066	24,354	33,106	41,432	44,144	15.2%
9	영국	38,983	39,924	38,817	38,182	34,873	-2.7%
10	멕시코	-	-	-	26,812	29,952	-
전체 합계		1,888,614	1,976,235	2,352,293	2,651,990	2,767,627	10.0%

[자료: Government of Canada, Trade Data Online, KOTRA 토론토무역관 자료분석]

전체인구 중 23%의 이민자 기반 다문화 구조는 기존 북미 대형 브랜드가 충족하지 못한 ‘니치 세그먼트’를 형성하고 있으며, 과학적 성분에 기반한 K-뷰티의 ‘피부 고민 해결형’ 접근이 메인스트림 진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분석된다. 아모레퍼시픽 캐나다 법인 관계자는 KOTRA 토론토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 소비자들은 제품 성분을 매우 꼼꼼히 확인하며, 특히 한국제품의 ‘저자극’, ‘피부장벽 강화’, ‘수분 유지’와 같은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 판매량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유통사 KORSMET 역시 “민감성 피부용 더마 스킨케어의 재구매율이 매우 높아 니치 세그먼트 공략의 실효성이 입증되었다”고 강조했다. 현지 물류·인허가 전문기업인 트루풀필먼트 (TruFulfillment)의 관계자도 KOTRA 토론토무역관 인터뷰를 통해 “캐나다 소비자들은 단순 브랜드 신뢰보다 유효성분·함량·과학적 근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제품군 별 비중을 살펴보면 스킨케어가 약 42%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한 피부 바탕'과 '루틴형 관리'를 중시하는 캐나다 특유의 소비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이다. 최근에는 고물가 시대에 맞춰 실질적 효능과 가성비를 동시에 추구하는 '트레이드-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프리미엄 더마코스메틱 제품군에는 오히려 지출을 늘리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품목별 수입동향 및 성장요인

세부품목(HS CODE 6자리 기준) 분석 결과, 한국산 제품은 모든 카테고리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초화장품(HS 3304.99)은 한국산 전체 수입의 74.3%를 차지하며 시장 점유율을 2020년 4.4%에서 2024년 9%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품목별 캐나다 전체 수입액 대비 한국산 점유율 비중 변화 (2020년 VS 2024년)>
(단위: %)

HS 코드	대표품목	2020년 점유율	2024년 점유율	점유율 증가(pp)	점유율 CAGR ('20~'24)
3304.99	기초·스킨케어 등	4.38%	8.96%	+4.58	19.6%
3304.10	립 메이크업	5.92%	10.10%	+4.18	14.3%
3304.20	아이 메이크업	6.17%	8.32%	+2.15	7.8%
3304.91	파우더류	0.88%	3.55%	+2.67	41.7%
3304.30	매니큐어 등	0.82%	2.74%	+1.92	35.2%
전체 평균(HS 3304)		4.38%	8.55%	+4.17	18.2%

[자료: Government of Canada, Trade Data Online, KOTRA 토론토무역관 자료분석]

이러한 한국산 화장품의 점유율 확대는 캐나다의 인구 구조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먼저, 캐나다는 전체 인구의 약 23%가 이민자로 구성된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다. 이민자 비중은 경제 활동과 소비 시장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뷰티 산업에서는 피부 타입, 문화적 미적 기준, 성분 선호도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가운데 토론토는 캐나다 내 다문화주의가 가장 고도화된 도시로 평가된다. 광역 토론토 지역(Greater Toronto Area, GTA)은 다수의 캐나다 이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며 남아시아계와 동아시아계 인구 비중이 타 주 대비 월등히 높다.

이 같은 인구 구성은 스킨케어 중심 소비 구조와 직결된다. 특히 인도계 및 동아시아계 소비자들은 피부 장벽 강화, 저자극 처방, 고기능성 성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이는 K-뷰티의 핵심 경쟁력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한편, 시장 유통 구조 측면에서 온타리오주의 영향력도 절대적이다. 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온타리오주는 2025년 10월 기준 캐나다 전체 수입액의 약 62%에 해당하는 429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통관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뷰티 제품이 이 지역을 거점으로 전국 유통망으로 확산된다. 즉, 온타리오주는 단순한 지역 시장이 아니라 캐나다 뷰티 산업의 물류·유통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 소비 수요가 집중된 GTA 지역과 전국 유통의 관문인 온타리오주의 구조가 맞물리면서 토론토는 신제품 테스트 마켓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실제 현지 매장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GTA 내 주요 리테일러들은 아시아 브랜드 유치를 위해 별도의 K-뷰티 섹션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공간 재편을 진행하고 있다. K-뷰티는 특정 지역의 니치 소비를 넘어 전국 확산이 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주요 유통사별 파트너십 및 한국 브랜드 진출 동향

IBIS Report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캐나다 화장품 소매 산업 규모는 약 91억2000만 캐나다 달러로 추산되며, 전국적으로 약 4945개의 전문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 주요 뷰티 유통 채널별 현황 및 입점 구조>

구분	쇼퍼스드러그 마트 (Shoppers Drug Mart)	세포라 캐나다 (Sephora)	전문 리테일러 (Kiokii 등)	아마존 캐나다 (Amazon)
매장 수	약 1,300개 대중적 전국망 (41.9% 비중)	프리미엄 트렌드 리더 약 140개	니치 및 아시아계 중심 약 22개 (‘26년 Montreal 진출)	온라인 전용 옴니채널 재구매 허브
매장운영 제품선정 기준	볼륨 확대 및 접근성 중시	브랜드 신뢰도 및 체험 강화	바이럴 가능성 및 확장성	가격 경쟁력 및 트래픽
마진율 (추정)	50-60%	50-65%	40-50%	플랫폼 수수료

[자료: Euromonitor, Cosmetic Industry in Canada Future-proof Strategies 등 종합]

2026년 초 현재, K-뷰티는 기능성 스킨케어를 중심으로 캐나다 메인스트림 리테일 채널 입점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국 1300여 개 매장을 보유한 최대 드럭스토어 체인인 쇼퍼스드러그마트 (Shoppers Drug Mart)는 2026년 1월부터 온라인 전용 ‘K-뷰티 컬렉션’ 페이지를 개설하며 아누아(Anua), 조선미녀(BOJ), 라운드랩(Round Lab) 등을 대거 입점시켰다. 세포라(Sephora) 캐나다는 2026년 가을로 예정된 CJ올리브영과의 대규모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인디 브랜드들의 전국구 유통망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을 마련할 전망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사례에 따르면 오프라인 프레스티지 채널에서 확보한 브랜드 신뢰가 아마존과 세포라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전체 온라인 매출 비중 30% 돌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유통 채널별 입점 조건>

채널 유형	대표 기업	입점 주요 조건 및 특징
프레스티지	Sephora Canada	브랜드 공신력, 인플루언서 마케팅, 최소수량주문(MOQ) 준수
드럭스토어	Shoppers Drug Mart	제품별 입점비(Listing Fee), 로열티 프로그램 참여
이커머스	Amazon Canada	공식 셀러 인증, 물류(FBA) 시스템 연동 필수
전문 리테일러	Kiokii and.	트렌드 적합성, 바이럴 가능성 우선 검토

[자료: Euromonitor, Cosmetic Industry in Canada Future-proof Strategies 등 종합]

2026년 초 기준 캐나다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브랜드들은 특정 성분의 효능을 입증한 히어로 상품(Hero SKU)을 전략적으로 앞세우고 있다. 틱톡(TikTok) 등 SNS를 통해 확산된 '유리 피부(Glass Skin)' 열풍은 코스알엑스(COSRX)의 스네일 뮤신과 조선미녀의 선스크린을 품귀 상태로 만들기도 했다. 2026년 현재 K-뷰티는 각 타겟별로 세분화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통해 캐나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캐나다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주요 브랜드의 캐나다 시장 진출 동향은 아래와 같다.

- 라네즈: 영타겟을 겨냥한 트렌드 리딩 브랜드로서 립 카테고리외 스킨케어 양쪽에서 동시 집중 성장하며 메인스트림 입지를 다짐
- 이니스프리: '자연주의' 가치를 강조하며 현지 소비자들의 클린 뷰티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음
- 설화수: K-뷰티에서 보기 드문 독보적인 '럭셔리 타겟' 포지셔닝을 구축하여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 중

<2026년 캐나다 주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 캐나다 진출 현황 및 포지셔닝>

브랜드	진출채널/핵심품목	주요 동향	포지셔닝
아누아 (Anua)	쇼퍼스/ 어성초 77% 토너	2026.01월 신규 입점	기능성
조선미녀 (BOJ)	쇼퍼스/인삼+레티날 아이 세럼	2026.01월 입점 확대	가성비, 기능성
라운드랩 (Round Lab)	쇼퍼스 / 1025 독도 라인	2026.02월 신규 입점	데일리 클린 뷰티
티르티르 (TIRTIR)	쇼퍼스 / 마스크 핏 레드 쿠 션	2026.02월 신규 진입	매스티지 메이크업
한울 (Hanyul)	세포라 / 프리미엄 스킨케 어	2025년 하반기 진 입	한국의 전통 원료기반, 유자라인(Yuja)
에스트라 (Aestura)	세포라 / 아토페리어365	2025년 하반기 진 입	고기능성 메디컬 뷰티

[자료: 리테일러 웹사이트 및 기업 공식 발표]

규제제도 및 진출 유의사항

캐나다 시장 진출의 가장 높은 문턱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엄격한 규제 체계다. 특히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향 성분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제(Fragrance Allergen Disclosure)'에 따라 기준치(린스오프 0.01%, 리브온 0.001%) 이상의 특정 향 성분은 반드시 개별 기재해야 하며, 위반 시 즉각적인 리콜 대상이 된다.

성분 규제인 '핫리스트' 또한 2026년 2월을 기점으로 대폭 강화됐다. 특히 브루신(Brucine)은 기존 '제한 성분'에서 '전면 금지'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Basic Violet 4(발암 가능성) 및 PHMB(흡입 독성) 등에 대한 제한도 강화되어 수출 전 성분 스크리닝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2026년 2월 17일 캐나다 보건부는 리콜 공지에서 금지 성분이 미세하게 포함된 립밤과 비누가 적발 사례를 공지하며 해당 제품의 통관 거부 및 폐기 조치를 내렸다.

가장 큰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제품 분류다. 자외선 차단제는 일반 화장품이 아닌 비처방 의약품 또는 천연건강제품(NHP, Natural Health Product)으로 분류돼 별도의 허가 번호를 받아야 한다. 허가 번호는 비처방의약품 번호(DIN, Drug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천연제품 번호(NPN, Natural Product Number)가 있다. 현지 바이어는 "최근 보건부가 한국 웹사이트의 홍보 문구와 패키지 설명을 1:1로 대조할 정도로 심사가 엄격해졌다"며 클레임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2024년 캐나다 보건부가 한 한국 소재 공급사에 발송한 공식 경고 공문 사례를 살펴보면, 공문에 적힌 'Sunscreen products are not allowed to be commercially imported, distributed, or advertised in Canada unless the proper licenses are obtained, and a responsible Canadian party is identified'라는 문구를 통해서 적법한 제품허가(DIN 등) 없이 캐나다 내 책임주체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 제품 자체 판매가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해당 부처 규제 강화에 따라 캐나다 현지 기업들도 단순 판매 전략에서 벗어나 '합법적 판매 근거 확보' 자체를 경쟁력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현지 기업 트루풀필먼트(Trufulfillment)는 한국화장품 수입 시 인허가 및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26년 1~2월 두 달간 한국 수입제품의 화장품등록신고서(CNF, Cosmetic Notification Form) 처리 건수가 60건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시장전망 및 진출전략

향후 5년간 캐나다 뷰티 산업은 연평균 5.2%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030년 약 110억 캐나다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산업에서 여전히 로레알 (L'Oreal, '24년 기준 19.0%), 에스티 로더(Estee Lauder, 24년 기준 7.4%) 등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의 장악력이 높으나, 한국 브랜드들은 '기능성 니치' 전략으로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특히 토론토와 GTA 지역의 인구 다변화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특정 인종이나 피부 타입에 특화된 니치 브랜드들이 메인스트림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는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들에게 주어진 기회 요인은 분명하다. 2026년 하반기 예정된 올리브영-세포라 협력 모델은 한국 브랜드에 전례 없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한 협력 모델을 추진하는 대형 유통 채널의 변화를 적극 활용하여 캐나다 전역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6년 4월부터 적용되는 향료 알레르겐 공시 의무 등 강화된 규정을 '진입 장벽'이 아닌 '브랜드 신뢰 구축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초기 진입단계에서는 보습과 진정 등 저위험 제품군으로 시장 반응을 확인한 후, SPF 및 여드름 개선 등 고기능성 제품군으로 순차 확장하는 단계적 침투(Phased Penetration)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6년 캐나다 뷰티 산업은 유행을 소비하는 시장에서 신뢰를 중시하는 시장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제품의 기능적 우수성을 과학적 데이터로 입증하고, 캐나다 보건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통과한 브랜드만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수출기업들이 토론토를 거점으로 협력 채널망을 구축하고 다문화 소비자 특성에 부합하는 현지화 마케팅 전략을 통해 북미 시장의 교두보로서 캐나다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자료: Government of Canada, Statistics Canada, Health Canada, Circana, Mordor Intelligence, Essential Guide to the Cosmetics Market in 2026, Canada's Cosmetics Market Report 2026, Shoppers Drug Mart History, Sephora, Cosmetics Industry Statistics in Canada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6. 03. 19.〉

현황 추진 업무
의 협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예정 행사

○ 「일본 약용 화장품 왜 지금인가? 한국 화장품의 현지화 고도화 전략 웨비나(유료)」 개최 안내(5.19)

우리 협회에서는『일본 약용 화장품 왜 지금인가? 한국 화장품의 현지화 고도화 전략 웨비나』를 아래와 같이 유료로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사전등록 링크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일시 : 2026. 5. 19.(화), 14:00 ~ 17:00

나. 주최 : 대한화장품협회

다. 대상 : 해외 수출 회사 또는 수출 계획 중인 회사

라. 참가비 : 회원사 30,000원/1인, 비회원사 60,000원/1인

※ 동일 회사에서 여러 명이 수강하는 경우, 각자 개별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언어 : 한국어

바. 참석방법: 온라인 플랫폼(웨비나)을 통한 실시간 영상 송출

사. 주요내용 : 세부 사항은 붙임의 웨비나 프로그램 참고

아. 참가신청: 아래 사전등록 링크를 통해 신청

- 회원사 사전등록 링크 : <https://edu.helpcosmetic.or.kr/regist/detail.do?openSubjectCd=OC00005600001>

- 비회원사 사전등록 링크 : <https://edu.helpcosmetic.or.kr/regist/detail.do?openSubjectCd=OC00005700001>

자. 신청기간 : 2026.5.15.(금) 까지

※ 본 웨비나는 신청기간 내 **전자결제를 완료하신 분에 한하여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참가 신청은 전자결제 선착순 마감이며**, 참석 신청자가 많은 경우 안내된 신청기간보다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교육은 유료교육으로 전자결제까지 완료하셔야 접수됨**을 알려 드립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저장만 한 상태는 접수X)

※ 취소 및 환불 : 5월 15일(금) 18:00까지 취소 요청 시 환불 가능, 이후 불가

차. 참석방법

-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웨비나 개최 1일 전에 접속 URL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웨비나 Zoom 링크 접속 시 회사명 및 신청자 성함을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중복 접속이 확인될 경우 즉시 퇴장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대한화장품협회 박미령 과장(070-8709-8613, tulip97@kcia.or.kr)

※ 협회 회원사 가입 여부 확인 방법: 협회 홈페이지 회원사 소개(https://kcia.or.kr/home/inst/inst_company_list.php) → 회사명 입력 및 검색

※ 회원사 신청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인원 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끝.

- 관련링크: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7542&ss=page%3D1%26skind%3D%26sword%3D%26ob%3D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진 현황

○ 대한화장품협회 회원사 대상 「화장품 글로벌 규제 뉴스레터」구독자 모집 안내

우리 협회는 회원사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주요 국가의 화장품 규제 동향, 인허가 정보 및 수출 설명회 개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 뉴스레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 뉴스레터는 4월 29일(수)부터 격주(2주 1회)로 온라인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뉴스레터 구독을 희망하는 회원사를 모집하오니, 구독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 <https://forms.gle/wxnM2PG7jNSJbj2F7>

관련 문의는 우리 협회(담당자: 박미령 과장, Tel: 070-8709-8613, email: tulip97@kcia.or.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사 여부 확인 방법:

협회 홈페이지 회원사 소개(https://kcia.or.kr/home/inst/inst_company_list.php) → 회사명 입력 및 검색

- 관련링크: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7542&ss=page%3D1%26skind%3D%26sword%3D%26ob%3D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화장품협회 코스메틱리포트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저희 협회에서는 매주 발행되는 코스메틱리포트의 이용 현황과 개선 의견을 파악하고, 향후 뉴스레터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코스메틱리포트 발행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설문조사 링크 : <https://forms.gle/EWi8jUD4uRe7NqM67>

*소요 시간: 약 2~3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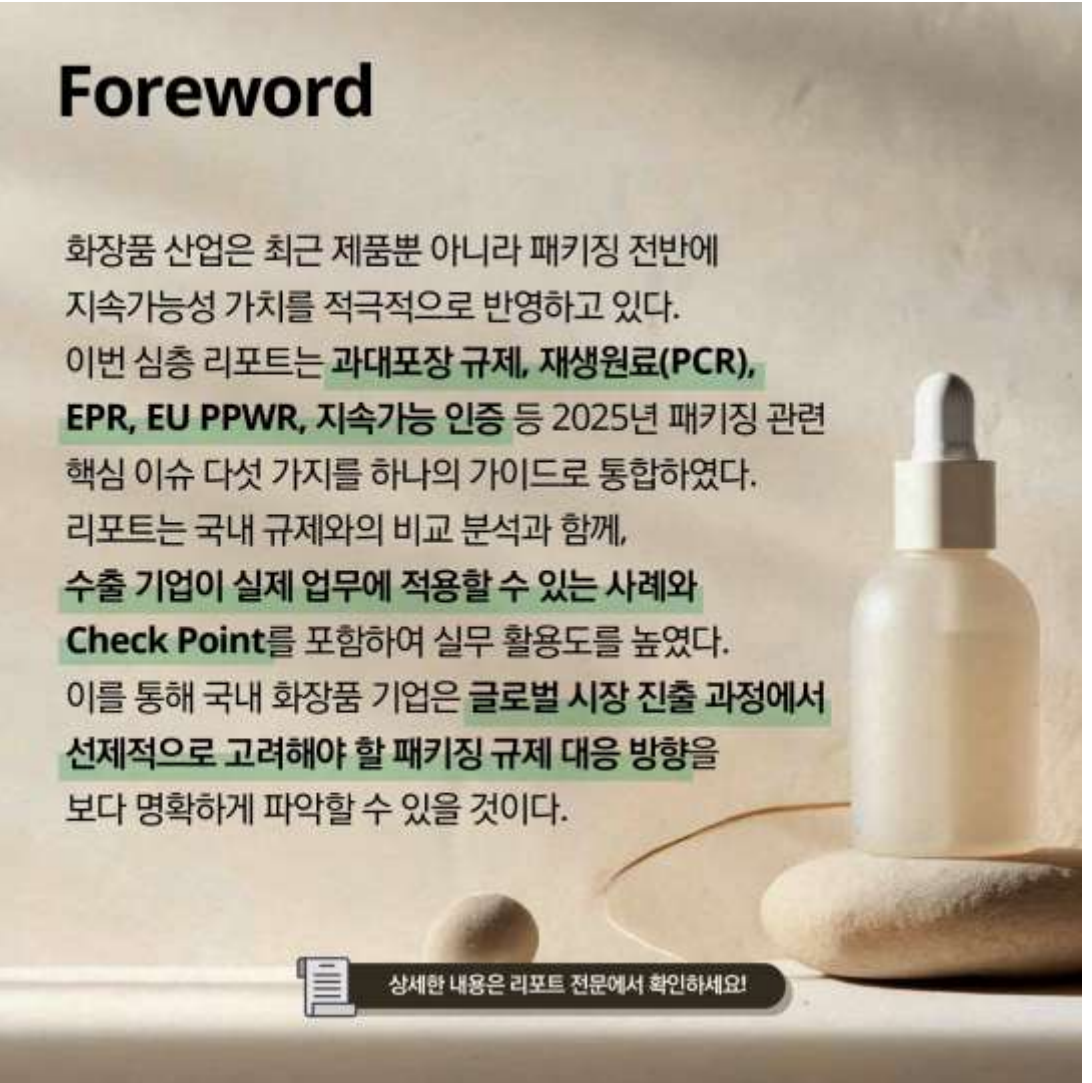
- 문의 : 경영관리실 이병수 과장

02-785-7985 / jacklbs@kcia.or.kr

◦ [대한화장품협회] 2025 ESG 인사이트 리포트(과대포장)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업계의 지속가능한 패키징 관련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방향성과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총 6개의 시리즈로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마지막 ESG 인사이트 리포트 <화장품 패키징 규제 통합 가이드> 입니다. 업무에 많은 참고 바라며, 리포트 원본 파일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화장품 패키징의 전략적 가치

화장품 패키징의 역할과 목적

화장품 패키징의 핵심 역할	
제품 보호 &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 품질 유지·손상 방지 ✓ 제조-포장-유통-사용기한 전 과정에서 안정성 확보
소비자와 브랜드의 소통 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명료·객관적인 정보 제공 ✓ 사용감·브랜드 정체성을 드러내는 첫인상 역할
지속가능한 소비로의 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소재 사용 & 재활용 설계 적용 ✓ 소비자에게 지속가능한 선택 메시지 전달

💡 화장품 패키징 주요 Point

설계 포장최소화를 위한 제품 설계 및 디자인	생산 재활용성 확보 및 재생원료 적용	재활용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	--------------------------------	---------------------------

01

02. 화장품 산업의 주요 패키징 규제

과대포장규제

국내 과대포장 규제		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
단위 제품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외 화장품류 (방향제 포함)	10% 이하	2차 이내
종합제품		25% 이하	2차 이내
1회용 수송 포장		50% 이하	1차 이내

※ 2026년 4월 30일 이후 소비자에게 수송되는 택배에도 규제

💡 과대 포장 규제의 목적

- ✓ 폐기물 감축 및 폐기물 처리의 사회적 부담 감소
- ✓ 환경 오염 및 탄소배출량 감축
- ✓ 패키징의 과대 생산 비용 및 구매비용의 경제적 부담 감소
- ✓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기만 방지

02

기업의 과대포장 규제 대응 Point!

구분	항목	내용
포장 공간 비율	규제 기준	✓ 화장품 종류별 기준인지, 순함량·단일소재 등 공통 기준인지 구분
	공간비율 허용수치	✓ 허용되는 공간비율 정량 수치로 규제 강도 파악
측정 방식	패키징 부피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치수 기준 구분 필요 ✓ 국가별 패키징 두께 제한 확인(예: 한국 10mm)
	제품 부피 측정 기준	✓ 완충재 사용 여부, 공간계수 적용 여부 등 국가별 방식 파악
포장 제한	포장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포장 횟수 확인 ✓ 포장 횟수별 공간비율제한 적용 확인
	포장 비용 비율 규제	✓ 전체 판매가 대비 포장 비용 비율 제한 규제 확인
기타	행정 제재	✓ 과태료부터 영업정지·폐업까지 처분 수위 확인
	국가별 특징	✓ 중국 내용물 기준 공간비율 적용, 대만 단일소재 장려 규제 완화 등 국가별 확인 필요

03

- 관련링크: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7092&ss=page%3D1%26skind%3D%26sword%3D%26ob%3D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사지원센터」, 「챗봇(코스봇)」 이용안내

당신만 모르는 알짜배기 정보 제공 사이트!

처음 수출을 시도하거나 해외시장 진출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
수출국 다변화를 절실히 느끼고 계신 분들!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사지원센터"가 해외수출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 드립니다.



중국 외에도, 미국, 유럽, 캐나다, 아세안, 중동 등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한데, 국가별 인허가가 다 달라서 고민이에요!

화장품 해외 인증 절차, 필요 서류 목록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요.

각국의 화장품 법령 정보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나라마다 금지 성분이 다 다른데, 이건 또 어디서 찾아야 해요?

해외 각국별 인증 대행기관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정보가 어디 한 군데 모여져 있는 사이트는 없나요?

걱정 마세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사지원센터"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17개국 화장품 제도
인허가에 대한 최신 웨비나
강의 자료, 강의 영상!**

유럽, 미국, 브라질, 중국, 러시아, 홍콩, 영국,
캐나다, 멕시코, 대만,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우디, 인도

**핵심을 모아 정리한
각국별 "수출시 주의사항"
자료집!**

미국, 일본, 아세안, EU, 영국, 브라질, 호주,
러시아, GCC, 인도,
아세안 환관 인증제도, 말레이시아

**13개국 인허가
대행사 정보**

**세계 23개국
화장품 법령 정보 제공**

**10개국(중국, 유럽, 한국 등)
화장품 배합금지배합한도 정보**



REVIEW 웨비나 100% 리얼 수강 후기

실무에 밀접한 콘텐츠 위주의 교육이었기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만
장에서 강의해주셔서 매우 알찬 교육이었습니다.

성금사에 및 인허가 관련 실무적인 교육
감사드립니다.

OMUFA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Q&A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더욱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정의당담론 전해주시고 FDA 대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화장품, 약외용 입구에 대해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전문 인허가 에이전트의 강의와 답변을
통해 궁금한 점들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현장 질문과 실시간 질의응답 최고였어요.

현지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강사님 전문성이 좋았습니다.

각 나라별로 차이가 나는 규정이나 제도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세세한 내용 및 예시들과
명확한 번역까지 이해가 쉬워요!

세세한 부분까지 강연해주셔서 좋았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최고였어요!!



이용자 후기

-  화장품 제도에 대한 기본 지식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화장품 규제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 가능해서 편리해요.
-  신속하고 편리하게 궁금증을 해소해 주네요!
-  화장품 제도와 관련한 법규는 코스봇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서 좋아요.
-  우리 같은 스타트업이나 이제 막 화장품 사업을 시작한 사람한테 정말 유용해요.

- 관련링크: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5750&ss=page%3D1%26skind%3D%26sword%3D%26ob%3D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와 카카오톡 친구 추가 방법 안내

대한화장품협회 카카오톡 친구 추가 방법 안내



친구추가 하러가기

카카오톡 친구 추가시 혜택



화장품 법령 및 정책
정보 실시간 제공



화장품 관련 교육
및 해외 수출 정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한 정보 확인

친구 맺기 3단계 방법



1. 카카오톡 접속 후 '더보기' 클릭
하단 메뉴의 점 3개 버튼을 눌러
설정 페이지로 진입합니다.



2. 검색창에 '대한화장품협회' 입력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고
대한화장품협회 이름을 정확히 검색합니다.



3. 채널 버튼 클릭하여 친구 추가
검색 결과에서 협회 채널을 선택하고
친구 추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행사 소식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관계부처 합동]「포장재 분야 글로벌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EU PPWR)」

**포장재 분야
글로벌 규제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일시
2026.4.29.(수) 13:30 - 16:00

장소
국가철도공단 2층 대강당(KTX 대전역)

주최
관계부처 합동

주관
한국환경공단,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사전등록

시간	내용
13:30 - 13:35	개회 및 인사말
13:35 - 14:25	EU PPWR의 이해 및 대응 실무 해설(FAQ 반영)
14:25 - 14:55	중소기업 대응방안 및 지원사업 소개
14:55 - 15:05	휴식
15:05 - 15:35	식품 분야 대응전략 * 화장품 일부 포함
15:35 - 15:55	식품기업 대응방안 및 지원사업 소개
15:55 - 16:00	폐회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하는 KPRC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수신자 수신처참조
(참조)

제 목 「포장재 분야 글로벌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안내 및 참석 협조 요청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EU PPWR(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도입에 따라 국내 기업의 포장재 규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최신 동향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포장재 분야 글로벌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본 설명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현장 참석과 함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온라인 참여가 병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유튜브 라이브)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유튜브 채널 통해 송출예정이며 라이브 채널 확정시 추후 안내 예정

□ 행사 개요

- (행 사 명) 포장재 분야 글로벌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26. 4. 29(수) 13:30 ~ 16:00, 국가철도공단 2층 대강당(대전역 인근)
 - * 기후부 유튜브 채널 생중계 병행, 일회용품 사용금지, 음료·다과 섭취 불가
- (주 최) 관계부처 합동(기후부 등 4개 부처)
- (주 관) 한국환경공단,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주요내용) **환경공단** EU PPWR 주요 내용 및 FAQ 기반 설명, **기후부** 중소기업 대응방안 및 지원사업 소개, **식약처·농림축산** 식품·화장품 분야 대응전략 및 지원사업 안내
- (참석대상) 포장재 관련 기업, 협·단체 및 유관기관
 - * 오프라인 현장 참여 약 650명(사전등록 접수 기준, 선착순)

□ 사전등록 안내

- (신청방법) 하단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한 사전등록
- (신청기한) ~ '26. 4. 27.(월), 18:00까지
- (신청링크) <https://m.site.naver.com/25haK>

* 오프라인 참석은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입장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관련링크: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7515&ss=page%3D2%26skind%3D%26sword%3D%26ob%3D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분야 정상 개선 아이디어 공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꿀 여러분의 제안을 기다립니다

제안 주제 식의약 분야 비정상적인 관행, 제도를 바로잡고 정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안 분야

- ①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 ②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 행위자가 이익 향유 사례
- ③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 ④ 제도가 국민 일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 ⑤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

• 마약범죄	• 공직부패	• 보이스피싱
• 부동산 불법행위	• 고액약성체납	• 주가조작
• 중대재해	• 보조금 부정수급	• 대형담합
• 특혜성 인허가		

1차 공모기간 2026.4.15(수) ~ 4.22(수)

제안 방법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메일로 제출(mfdsinno@korea.kr)

- 관련링크: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7539&ss=page%3D2%26skind%3D%26sword%3D%26ob%3D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TRA] 중동 전쟁 피해기업 지원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 사업 주요 내용

- 모집 기간: 2026년 4월 13일(월) ~ 2026년 4월 26일(일)
- 모집대상: 25년-26.2월 중동* 수출 실적 보유기업 중 ①중동지역 또는 ②중동 외 지역(전세계) 물류지원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 (중동 22개국)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튀르키예
- 지원지역: 중동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지역
- 지원 규모: 기업별 최소 100만 원 ~ 최대 2,400만원 한도 (자부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70%)
 - * 기존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대비 2배 상향(지역에 따라 상이 - 첨부 공고문 참조)
- 신청 가능 무역관: 전세계 3개 무역관
 - (중요!) 현재 2026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기참가 기업은 **동일 무역관 한도증액**도 가능합니다.
 - 예) 중동 수출실적('25년~'26년 2월)이 있으면서, 현재 LA무역관(최대 1,200만원) 1곳에 500만원 한도로 2026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에 참가 중인 기업
 - LA무역관 한도를 500만원 → 2,400만원 상향 가능(이 경우 중동 전쟁 피해 기업 지원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신청시 1,900만원 선택)
 - 추가로(신규) 두바이(1,600만원 한도), 암스테르담(2,000만원 한도) 중동 전쟁 피해기업 지원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신청 가능

○ 비고: 수출바우처 사업 참가 기업도 신청 가능(단, 동일 건에 대해 해외공동물류센터, 수출바우처 중복 정산 불가)

○ 참고 사항: 아래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패스트트랙'을 실시하여 기업 신속 선정(접수 후 3일 이내) 예정

- '25년 對중동 직수출 실적 총액 50만불 이상 보유기업

- '25년 對중동 직수출 총액 30만불 이상이면서 해당 지역 수출비중이 해당기업의 '25년 전체 수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 신청 방법: KOTRA 사업신청 페이지 접속([클릭](#))

□ [문의처] KOTRA 물류지원실

○ 이메일: logistics_support@kotra.or.kr

○ 전화: 02-3460-3336, 7435, 7428

- 관련링크: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7539&ss=page%3D2%26skind%3D%26sword%3D%26ob%3D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6 K-년도 뷰티 해외 팝업스토어 및 판매장 운영 지원사업 추가 공고 안내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국내 유망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K-뷰티 해외 팝업스토어 및 해외 판매장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수행기관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래 -

가. 공고명

- 1) K-뷰티 해외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사업
- 2)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및 규모 : 각 사업별 공고문 참조

다.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5.29(금), 13:00 까지**

- 관련링크: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7546&ss=page%3D1%26skind%3D%26sword%3D%26ob%3D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사 뉴스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가입 안내

<p>구비서류</p>	<p>① 대표자 이력서 1부 ② 회사소개서 1부 ③ 회사연혁 1부 ④ 사업전개방향 1부 ⑤ 제조판매업등록증(제조업등록증) 사본 1부</p>	
<p>회원의 자격</p>	<p>▪ 정회원 -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p>	<p>▪ 준회원 - 화장품 판매자, 원료제조·공급자, 화장품연구기관, 화장용구 제조업자</p>
<p>회비</p>	<p>▪ 정회원 - 입회비 : 월회비 × 12월 - 월회비 : 매출액에 따른 차등 적용(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입회비 1,800,000원, 월회비 150,000원 임</p>	<p>▪ 준회원 - 입회비 : 500,000원(정액) - 월회비 : 정회원의 2/3 적용</p>
<p>회원가입시 혜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 의결권 • 회원사 애로 사항 대정부 건의 • 해외마케팅 지원(중국 상해, 중국 광주, 홍콩, 인코스메틱글로벌 전시회 한국관 참가지원) • 영문증명서 발급 • GMP 컨설팅 • 해외 수출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국내 변화정보(법령, 시장 통계, 해외 인허가 대행 명단)제공 • 성분사전(온라인) 정보 제공 • 화장품 관련 정부 실시간 제공(홈페이지, SNS, 코스메틱리포트) • 중국 수출관련 심층자료 제공 • 중소기업 포상 확대 • 회원사 친목 도모를 위한 정보교류 강화(조찬간담회, 정기총회) • 협회 주최 교육(세미나) 등록비 할인 • 수수료 우대 혜택(발간물, 영문증명수수료, 광고자문, 성분사전) • 회원사 홍보(신규회원, 경조사등 홈페이지에 홍보) 	
<p>회원가입절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가입검토</p> </div>	
<p>문의</p>	<p>대한화장품협회 경영관리실 Tel 070-7858-0564</p>	

